

불거리 없이는...
젊은층 없이는...
뮤지컬 영화는 안된다?

레미제라블은 됐다!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이 500만 관객을 눈앞에 뒀다. 새 흥행 기록을 쓰며 '이야기'에 눈길을 돌리는 중장년층 관객을 극장으로 이끌고 있다.

사진제공 | UPI

490만 관객 훌쩍...왜?

불거리만 찾던 관객을 이야기로 매료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고정관객 흡수
뮤지컬·고전 장르=흥행실패 편견 깨

한국영화 다양한 장르 도전 영향 관심

공감을 담아낸 한 편의 영화는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또 대중을 움직이게도 만든다.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이 흥행 기록을 새로 쓰며 국내 극장에서 '관객의 눈'을 바꾸고 있다.

15일까지 490만 관객을 모은 '레미제라블'은 뮤지컬 영화로는 국내 최고 기록인 '맘마미아'(453만)를 가뿐히 뛰어넘었다. 동시에 '아바타'부터 '트랜스포머' 시리즈까지 SF 혹은 판타지 블록버스터가 장악

한 외화 흥행 톱10 진입까지 앞뒀다. '레미제라블'은 40~50대 관객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며 중장년층의 영화 관람 문화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뮤지컬 영화는 안 된다'는 편견까지 바뀌 놓았다.

●화려한 불거리? 이야기로 관객 눈길 바꾸다

고전의 힘은 강했다. 최근 할리우드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야기 고갈'이란 사실을 '레미제라블'의 흥행이 역설적으로 증명했다. 화려한 영상과 기술에 집중했던 관객의 눈길이 탄탄한 이야기로 향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블록버스터 위주로 할리우드 영화를 소비해 온 한국 관객에게도 스토리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 작품으로 꼽힌다.

'레미제라블'은 주인공 장발장(쥘 제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그리고 있다. 배경은 프랑스 혁명을 전후한 격동기. 세상과 인간을 구원할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는 영화는 시대적 혼돈 속에서도 인간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장발장을 통해 현재의 우리를 들여다보게 한다.

시대와 배경은 달라도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과 인간을 향한 사랑은 불변의 가치란 사실도 '레미제라블'은 증명하고 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이 가장 많이 내놓는 평가

역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맞아 떨어진다"는 내용이다. 진정성 깊은 이야기가 불러온 공감의 힘이다.

●영화관은 20대의 전유물? 중장년 관람문 화 바꾸다

지난해 한국영화 관객이 사상 처음 연간 1억 명을 돌파했다. '도둑들', '광해, 왕이 된 남자' 등 1000만 영화를 비롯해 흥행작이 계속 나오면서 다양한 연령대 관객이 극장에 몰렸고 덕분에 40~50대 관객들도 빠르게 늘었다.

그동안 중장년층은 히트작이 나오면 '반짝' 극장으로 몰리는 부동층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부쩍 늘어난 중장년 관객은 잇따라 나오는 '잘 만든' 영화를 선택하면서 이제는 '극장 고정 관객'으로 안착했다.

그 기록제가 된 올해 첫 영화가 '레미제라블'이다. 실제로 이 영화의 흥행은 40대 이상 관객의 열렬한 지지로 이뤄졌다. 15일 낮 12시 현재 티켓 예매사이트 맥스 무비 집계에 따르면 '레미제라블' 예매율은 4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39%를 기록

했다. 그동안 극장 주관객으로 인정받았던 20대의 예매율은 20%에 그쳤다.

●뮤지컬 영화는 안 된다? 편견을 바꾸다

영화 관객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특정 장르의 작품은 흥행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은 여전히 팽배하다. '뮤지컬 영화는 안 된다'는 편견과 '고전 원작의 영화는 어렵다'는 우려다. '레미제라블'은 국내 영화 시장에서 오랫동안 깨지지 않았던 이 두 가지의 편견을 교정했다.

특히 뮤지컬 영화에 인색했던 국내 시장에서는 2006년 '삼거리 극장' 이후 7년째 뮤지컬과 영화의 접목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흥행 실패가 이유다.

고전을 원작으로 한 영화 역시 마찬가지. 2006년 '오만과 편견'이 세운 93만 관객이 최고 성적이다.

이 같은 일반의 편견이란 한계를 뛰어넘어 500만 기록을 앞둔 '레미제라블'이 한국영화의 다양한 장르 도전과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해리 기자 g01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스타 온라인



싸이, 클린턴과도?...입 벌어지는 인맥 과시

'국제가수' 싸이가 상상 이상의 인맥을 과시했다. 싸이는 15일 트위터(@psy_oppa)에 "밤금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색소폰 연주자를 만났다"며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싸이와 클린턴 전 대통령은 나란히 어깨를 마주하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싸이의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과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인자한 웃음이 눈길을 끌었다. 누리꾼들은 "대통령까지 만나다니 다음은 누구를 만날지 기대된다" "싸이의 인맥은 끝이 없구나" 등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송지효, 일제 강점기 여학생 복장 화제



연구자 송지효(사진)가 독립투사가 됐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송지효의 이색적인 모습이 소개돼 화제다. 송지효가 일제 강점기 여학생의 복장을 하고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을 촬영하고 있는 장면이 누리꾼에 포착됐다. 송지효와 함께 이광수, 김종국 등이 모두 일제 강점기 경찰 제복, 교복 등을 입고 있어 누리꾼들은 '송지효가 유광수 열사 아니냐'며 호기심을 드러냈다.

'런닝맨' 멤버들은 14일 서울시청 신청사 등에서 촬영을 하며 시민들의 눈길을 모았다.

스타 가라사대

이시영 "맞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15일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열린 로맨틱 코미디 영화 '남자사용설명서' 제작발표회에서, 극중 상대역 오정세를 때리는 장면에 대해 "더 세계 때려 달라고 해 최대한 성실하게 했다"면서.

김지운 감독 "왜들 그렇게 많이 먹는지"

15일 영화 '라스트 스탠드'의 미국 LA 기자회견에서, 제작비에 관해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큰돈이라고 여겼지만 워낙 스케일이 크다 보니 큰돈이 아니더라"며 할리우드 제작 방식에 적응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f

킴스 스포츠 (kim's sports)의
"티나"(teena) 중소기업
직영광고

공기주입형
Size: 160cm

아름다운 모습...
"티나"(teena)는 "리사"(Lisa)의 후속 작품으로 두껍고 내구성 뛰어난 고가의 재료만 사용하여 만든 최고급 최신행 제품으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고 특히 휴대와 보관이 편리하여 인기가 좋은 제품입니다. 공기 주입형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킴스 스포츠"는 1999년에 창립한 회사로 가격 보다는 품질을 으뜸으로 여기며 항상 변함이 없는 광고와 고객들의 꾸준한 신뢰로 인정받는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중소기업체입니다. 최신행 A/S 시스템을 갖추고 장기간 사용하는 고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남자들이 필요로 하는 "티나"는 전화 상담 또는 인터넷 화면으로도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 주소창에→ <http://킴스스포츠.한국>

제품문의 010-3500-5324 (02) 423-0020
인쇄제형 예술완구 전문제작사
킴스 스포츠 (kim's sports)
"킴스 스포츠"는 허가받은 일반제조사업자입니다.

디지털 발기콜

1. 발기원리 - 병원에서 봉
인플란트 시술과 같고 약 4
센치 콘돔두께로 끼우면
디지털이 혈액을 올려 안
아프게, 길고, 굵게 발기
된다.

2. 사정해도 즉시 않고 3시간
간이상 발기지속.

3. 즉시 발기 안 되고 조루
증 안 없어지면 환불보장.

4. 각종 링, 성기동맥혈류
증진기, 펌프처럼 성기목을
아프게 조여 혈액을 즉
사시켜 완전발기불능자로
만드는 제품이 아니다.

5. 당뇨, 고혈압, 성기확
대자, 전립선암수술자, 90
대, 완전발기불능자, 즉시
발기된다.

6. 발기약 안 먹고 발기되고, 표시 안나 아내도 속는다.

7. 성기 작은 사람 혈액을 디지털로 통증 없게 풍선 바람 많이
넣듯 올려, 길고, 굵게 확대한다.

※ 젊을때 시작하면 더 많이 길어진다.

8. 인체에 해가없고, 반영구적 특허품.

※양기환은 남자 양기를 보충해주는 식품이다.

010-9607-9970, 010-2762-2540
070-8243-9970
입금계좌 : 농협 351-0180-1510-63 구인숙
서울시 영등포 대림동 1052-33 / 통신판매번호 2012 영등포 0381 동타임미디어

ManClinic **비뇨기과** 원 맨남성의원

진료 **남성의학클리닉**

조루 대표전화 **1577-7574**
발기부전 (원터치)음주임/봉상임
레이저포경수술 / 성병종합검진
길이연장 / 바세린제거술
음경만곡증 / 정관수술

강남신사역 02-592-2220	일산 031-932-7933
신사역 5번출구 K타워 5층 병상임	백석역 1번출구 맨남성의원
노원 02-935-8777	인천 032-439-0007
노원역 8번출구 병상임	인천터미널역 2번출구 신세계백화점빌딩 4층 병상임
신도림역 02-3439-7582	부천역 032-657-0008
신도림역 1번출구 병상임	부천역 대성병원빌딩 맨남성의원
천호역 02-477-3477	안양 평촌 031-421-7511
천호역8번출구 브라운스톤천호 병상임	안양역 4번출구(롯데리조트 4층) 맨남성의원
	수원역 031-255-7582
	수원역 2,3번 출구 병상임
	천안 아산 041-563-0808
	천안터미널 사거리 병상임
	대전 042-484-7373
	광주광역시 062-351-7582
	신세계 백화점 사거리 병상임
	여수 순천 061-721-2555
	조례동 조례삼거리 맨남성의원
	대구 053-743-0075
	포항 경주 054-231-7001
	성원동 스타타워빌딩 302호 병상임
	출산 052-227-7332
	중원탈모타러 우리은행5층 맨남성의원
	부산서면역 051-803-7533
	서면역 1번출구 (구)천우빌 4층 병상임
	창원 마산 055-256-0303
	마산항동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병상임

www.manclinic.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120926-중-32390

트루맨 남성의원

발기부전 보형물 삽입술 / 팽창형/굴곡형 원터치 약물주입요법

✓ 귀두/음경확대 ✓ 조루/길이
✓ 바세린/만곡증 ✓ 남성지방흡입 (복부/여성형 유방)
✓ 포경/정관

아간
중환자
수술가능

전 질환
담당
구성

신뢰할 수
있는 결과

합리적인
비용

통터
거의
없는
수술

남성수술

왕십리점 02-2297-9616
서울 성동구 동선동 46 금강병원 4층
(2호선/5호선 왕십리역 1번출구)

강남점 02-557-551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2 삼성빌딩 3층
(2호선 선릉역 10번출구)

명동점 02-318-7571
서울 중구 남산동 1가 1-2번지 명동빌딩 5층
(4호선 명동역 3번출구)

부천점 032-323-8575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5-9 시그마타워 4층
(1호선 송내역 2번출구)

분당점 031-704-7588
87도 원시점 분당구 이매동 399-4번지 메트로빌딩 7층
(분당선 아담역 1번출구)

부산점 051-817-8526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486-9 S에디 빌딩 2층
(서면역 8번출구)

광주점 062-369-7532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60-24 무등산타워 3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trueman75.co.kr

트루맨

대표번호
1577-5095